

# 새 차 구입에서 길들이기까지 요령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국토해양부는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대상으로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 등 11차종을 선정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출시됐거나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GM대우 마티즈크리에이티브와 르노삼성 뉴SM3·뉴SM5, 기아 로체·스포티지R·K7, 현대 소나타YF·투싼IX와 렉서스 ES350, 벤츠E220, 아우디A6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은 정면충돌 안정성을 비롯해 부분정면·측면·기동측면충돌 안전성과 좌석·보행자·주행전복·제동 안전성 등 8개 항목에 대해 평가된다. 기동측면충돌 안전성은 기동을 직접 운전자의 머리 부분에 충돌시키는 평가로, 측면에어백 장착 등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충돌분야에서 최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종합등급이 매겨져 발표되고, 평가결과도 두 차례에 나눠 발표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판매차에 안전도 라벨을 부착하고, 제작사 홈페이지에 안전도를 공개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등급제도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신차 안전도 평가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작년까지 총 73차종에 대해 시행됐으며, 안전도평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go.kr/신차안전도평가](http://www.car.go.kr/신차안전도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할 사람들은 국토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차량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경제적인 면도 고려하고 말이다.

## ◆ 자동차 구입 요령

새 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각 자동차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견적을 뽑아보자. 최근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새 차 구입 형태에 따른 부대비용과 세금까지 한 번에 안내하므로 굳이 영업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사실 처음으로 새 차를 구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차량종류가 매우 많다 보니 어느 차량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 ▶ 자동차의 선택... 어떤 자동차를 살까?

자동차를 선택하는 요령에서 '어떤 차를 살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량 구매 예정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총 189명의 조사 참가자 중 △ 차량의 안전성 39.2%(74 명) △ 차량의 디자인 14.8%(28 명) △ 가격의 합리성 16.9%(32 명) △ 유지비 적절성 17.5%(33 명) △ 용도의 범용성 11.6%(22 명)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안전성이 좋은 차가 최고다. 요즘 토요타의 리콜문제도 바로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 ▶ 색상선택의 요령

자동차 구입의 고려 사항에 있어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색상이다. 차량은 색상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순백색·진주색

- 장점 : 야간운전시 안전성 우수, 가장 많은 판매량으로 선호도 우수, 중고차량 매각시 타 색상 대비 잔존가치 우수, 스크래치 발생시 복원 용이, 차량이 실제크기보다 빛의 확산으로 커 보임(대형차량에는 불리함), 깨끗한 이미지
- 단점 : 관리의 어려움(세차 등), 스크래치 발생시 복원 어려움(진주색)

#### ○ 은색

- 장점 : 관리의 용이함(세차 등), 많은 판매량으로 선호도 우수, 중고차량 매각시 타 색상대비 잔존가치 우수, 스크래치 발생시 복원 용이, 소형차 위주로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이
- 단점 : 중형차 부분에서, 많은 택시 및 업무용 차량이 은색이 많기 때문에 개성감 결여

#### ○ 검정색

- 장점 : 깔끔하고 고급스런 이미지, 트렌드한 이미지, 중고차량 매각시 타 색상대비 잔존가치

우수, 스크래치 발생시 복원 용이

- 단점 : 차량의 관리가 매우 어려움(세차 및 잔 스크래치), 차량의 야간 안전성 결여, 차량이 실제 크기보다 빛의 흡수로 인해 작아 보임

#### ○ 원색칼라

- 장점 : 강한 개성감과 트렌디한 이미지
- 단점 : 중고차 매각시 무채색 대비 잔존가치 하락, 스크래치 발생시 복원비용 과다 발생

### ▶ 차량 구입시 고려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돈만 많으면 야 무슨차를 못 구하랴. 그렇지만 차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빠듯한 예산으로 차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차량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차량을 운용하여야 한다. 자신의 전 재산에서 10%를 넘으면, 과도한 투자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일 경우, 차량을 구입 후 사용하게 될, 예를 들어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입과 이에 따른 본인의 재산 증가를 감안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자신의 현재 재산과 향후 예상 수입에 턱없이 과도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잘못된 차량 구입 한건이 앞으로의 자신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라면 부부는 물론 아이들한테까지 의견을 물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 ◆ 새 차 길들이기 요령

새 차를 구입하면 우선 기분이 좋다. 모르긴 해도 집 다음에 가장 비싸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새 차에

서 나는 특이한 냄새도 기분 좋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 좋은 감정이 오래도록 차를 관리할 것인가. 큰 맘 먹고 산 새 차, 좋은 성능을 유지하며 오래 타려는 운전자들의 심사는 당연한 일이다. 향상된 차량 성능으로 더 이상의 길들이기는 필요 없다'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 차도 초기에 관리를 잘 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길들이기 요령을 소개한다.

### ▶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읽어라

새 차를 처음 인도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출고 때 지급된 해당 차종의 사용설명서를 자세하게 읽고 익히는 일이다. 요즘 나오는 신차에는 각종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잘못된 상식으로 차를 관리하다가는 오작동이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차의 특징을 알고 타는 것이 좋다. 회전반경, 등판능력, 최고속도 등 제원표상의 신상명세는 물론 내 차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다면 위급한 상황시 대처능력이 빨라진다.

### ▶ 워밍업(예열)은 가급적 짧게

엔진마모의 70% 정도가 시동 뒤 30초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적당한 워밍업이 필요하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공회전을 시키면 윤활유 등이 원활하게 작동돼 엔진의 조기 마모나 수명단축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시간 공회전은 좋지 않다. 겨울철 이외의 계절에는 1분 정도가 적당하다.

### ▶ 각종 오일 교환은 필수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엔진오일과 함께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등을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새 차의

경우, 초기 엔진 마모를 감안하여 1,000 km 가량 주행하고 나면 반드시 엔진오일을 갈아주어야 한다. 1,600 km정도 주행한 뒤에는 차량의 각 부위를 점검, 필요한 정비를 한 뒤 점차적으로 고속 주행하는 것도 새 차를 길들이는 요령중 하나다. 또 10,000 km 가량 운행을 했다면 변속기 오일도 교환해 주는 편이 좋다. 변속기 내부는 금속으로 된 기어들로 구성 돼 있어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기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속도와 토크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때 각 기어들의 마찰로 인해 금속가루가 나오게 되는데 약 1만 km 가량 운행시 변속기 오일을 교환해 금속가루들을 제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 ▶ 급가속, 급제동은 금물

새 차가 제성능을 유지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과속 등 무리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 급가속을 하면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 여기에 엔진 부하 증가로 불완전연소가 일어난다. 과속은 엔진 회전수를 과도히 올려 심한 기계적 마모를 일으키고 결국 엔진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

### ▶ 보조 안전장치 보단 원형 유지

새 차를 사면 보조 안전장치나 액세서리를 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차체에 구멍을 내거나 망치질을 하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차체 부식의 원인이 되며, 사고시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 차는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 잘못된 자동차 상식이 차를 망가뜨린다

차를 처음 구입하는 운전자는 물론 오랜 경력의 소유자들도 잘못된 상식이나 습관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는 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심한 손상을 주는 경우로도 이어진다. 다음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식

들. 정확한 상식을 통해 차의 수명과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새 차는 고속으로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

처음 새 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새 차는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각종 기계 작동부의 맞물리는 부분들이 윤활을 받으면서 길들여지는 만큼 최초 1,000km 이전에는 고속이나 급가속,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엔진 회전수도 4,000rpm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고속으로 주행하면 오일이 과다 소모되거나 엔진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시동을 끄면 연료가 절약된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동이다. 기어 중립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엔진브레이크 기능이 상실되는 데다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끄는 것은 제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핸들 작동을 무겁게 해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 '워밍업은 5분 이상 필요하고 시간 단축을 위해선 가속페달을 밟아줘야 한다?'

자동차는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본온도가 갖춰져야 하며, 대부분의 차량들은 엔진 냉각수 온도가 85~95도에 도달해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추위도 2분 정도만 공회전하면 출발 준비가 충분하다. 엔진의 온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기계 작동에 무리를 주어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 'ABS 브레이크는 제동거리를 짧게 한다?'

최근 자동차에 보편화되고 있는 ABS는 제동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보다는 직진성과 조향 안정성

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ABS를 과신하지 말고 눈길이나 빗길 등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 확보하며 차분히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새 차 구입 후 카센터에서 광택을 내야만 도장 상태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자동차 광택만을 전문적으로 내주는 카센터에서의 광택작업은 자동차의 표면을 연마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광택을 낸다. 그러나 자동차의 도장구조를 살펴보면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동차의 도장은 철판의 방청을 방지해주는 '하도'와 도색의 밀착을 도와주는 '중도', 차량의 색상을 결정하는 '상도'라 하여 3번 도장을 하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광택을 결정짓는 '클리어' 부분을 입히게 된다.

색상을 결정짓는 상도의 경우 도장 막의 두께가 15~20 $\mu$ m 정도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새 차를 사서 광택작업을 한다고 이 클리어 부분을 손상시키면 오히려 자동차 도장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광택 전문점에서의 광택은 새 차를 구입한 후 2~3년이 지난 후 자동차 표면에 잔 흠집이 생겨 이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다시 새 차를 산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

